

Economy Brief

베세노믹스와 워시노믹스 충돌하나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베세노믹스와 워시노믹스 간 정책적 갈등이 표면적으로 있는 것 같은 모양새지만 워시노믹스를 매파적 통화정책의 신호탄 혹은 9월 금리인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잭슨홀 미팅 연설을 통해 일부 가시화된 워시노믹스가 과연 매파적 색깔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

현 시점에서는 베세노믹스와 워시노믹스가 충돌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워시노믹스는 여전히 모호한 색채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베세노믹스 효과를 주시해야 할 것임

베세노믹스와 워시노믹스가 충돌하는 것인가?

케빈 워시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다소 꺼지고 있던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불씨를 되살려 냈다. 그 동안 다소는 침묵을 지켜왔던 케빈 워시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물가 안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은 바이백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장기 국채금리를 유도하던 베센트 장관의 정책과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특히, 바이백 규모 확대, 재무부 트위스트(Treasury Twist,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 국채를 바이백(재매입)하여 장기 금리를 낮추려는 조치) 등과 같이 적극적인 시장개입 통해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려는 베센트 장관과 달리 케빈 워시 의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수단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비개입주의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정부, 즉 한 지붕 아래 두 정책'의 공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처럼 소위 베세노믹스와 워시노믹스 간 정책적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났지만 워시노믹스를 매파적 통화정책의 신호탄 혹은 9월 금리인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케빈 워시 의장 잭슨홀 미팅 발언은 연준 의장으로서의 원론적 발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여겨진다. 케빈 워시 의장은 2차례 FOMC 회의를 거치면서 신화 속 수수께끼와 침묵의 상징인 스팅크스에 빚대 '연준의 스팅크스'라고 명명되어 왔다. 포워드 가이드를 '금융위기의 유물'로 깎아내리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속내를 철저히 담아버렸기 때문이다.(연합인포맥스, 8월 31일 기사 참조) 그리고 스팅크스 케빈 워시 의장에 대한 금융시장 불만이 커졌고 이는 국채시장 불안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잭슨홀 미팅의 케빈 워시 의장 발언은 베세노믹스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발언보다는 케빈 워시 의장이 물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연준 의장으로서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을 향한 금융시장 불만의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금리인상 시그널보다 기대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반 여건상 케빈 워시 의장의 뚜렷한 매파적 색깔을 더욱 가시화하기보다는 스팅크스와 같은 모습을 당분간 유지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특히,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장기 국채 금리 불안 현상을 고려할 때 케빈 워시 의장은 조기 금리인상보다는 지표 결과에 따르는 신중하고 다소는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높다. 즉, 케빈 워시의 잭슨홀 미팅 발언보다는 9월초중반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사는 8월 고용 및 물가지표가 금리인상을 자극할 정도의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전히 9월을 포함해 연내 금리동결 가능성을 높게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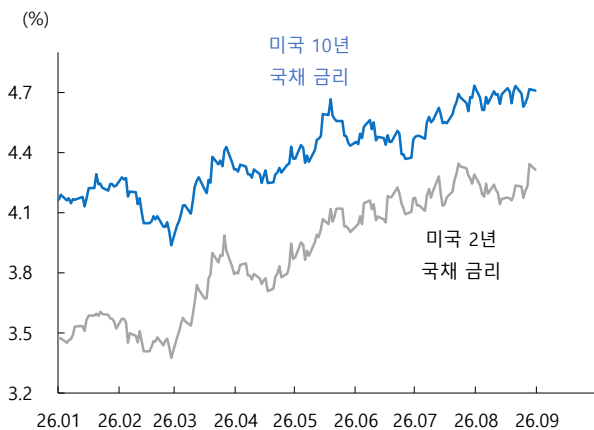
금융시장도 워시노믹스가 매파적 색깔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두 차례의 FOMC회의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케빈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물가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2년 단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베세노믹스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로 상승하던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도 일부 조정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잭슨홀 미팅 연설을 통해 일부 가시화된 워시노믹스가 과연 매파적 색깔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달러화의 경우 잭슨홀 미팅 연설 직후에는 강세 전환되었지만 강세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달러-원 환율의 경우 케빈 워시 발언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 종가 기준 1,368.6원으로 전영업일대비 3.9원 하락했다. 28일 160엔대로 반등했던 했던 달러-엔 환율 31일 아시아 시장에서 재차 159엔대로 하락하면서 케빈 워시 의장 연설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케빈 워시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로 워시노믹스가 매파적 색채가 아닐까 의구심은 커졌지만 여전히 반신반의 분위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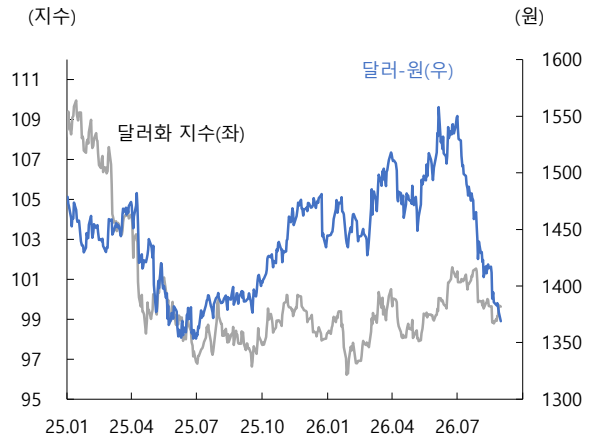
장기 국채 금리 안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당장 워시노믹스가 매파적 기조가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스프링스 케빈 워시 의장 발언보다는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통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 혹은 동결 지속을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베세노믹스와 워시노믹스가 충돌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워시노믹스는 여전히 모호한 색채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베세노믹스 효과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림1. 케빈 워시 의장 잭슨홀 미팅 연설으로 2년 국채금리는 큰 폭 상승했지만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미미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케빈 워시 의장 연설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하락세 지속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